

요즈음 미국의 국방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로 덕 체니 美 국방장관은 1990년도 국방예산에서 V-22 경사회전익 Osprey와 다른 몇몇 계획들을 배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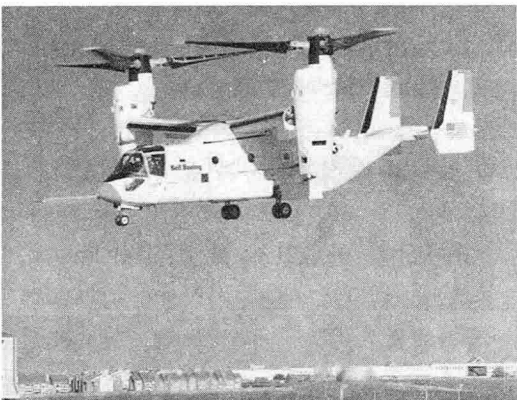
그중 몇몇은 의회에서 추가되었지만 추후 다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체니 국방장관은 조만간에 인력을 재조직하고 통합하여 펜타곤의 장비획득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내 판매실적 3위를 자랑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誌는 가장 중요한 신규 장비 다수가 「최하장비」 목록에 게재된, 『Best and Worst Weapon(최고장비와 최하장비)』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때에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유럽의 군사력 감축에 관하여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펜타곤의 「한여름밤의 꿈」인가? 아니면 미국의 신 정부가 새로운 상황을 탐색하기 위한 것인가?

후자가 더 정확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국방과 국가안보에 관한 새로운 행정부는 아니다. 체니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되었지만 의원으로서 국방문제를 다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 의장인 Brent Scowcroft와 부시의 고문인 James Woolsey는 노련한 수완가이다. 따라서 새롭다는 말은 기우

1990년 국방예산에서 제외된 V-22 Osprey



(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더이상 소련이 크고 포악한 곰이 아니란 말인가? 바르샤바 조약국이 서독을 궁지에 몰아 넣지 않는다는 말인가? 바르샤바와 그다니스크가 또 하나의 프라하가 될 위협이 없단 말인가?

이러한 가능성은 오랫동안 ‘敵’과 함께 살아오고 적들의 유화(宥和) 제스처를 이해하기 어려운 관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다.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와 고르바초프의 감축제안들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를 혼란시키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새로운 자금지원 기회를 제공해 준다. 즉 모든 非국방부문에 대한 새로운 지원요소로서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계획들을 보류한 펜타곤의 결정은 비평가들에게 너무 많은 계획을 줄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두려움은 새로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들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 미국 언론들의 잘못으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마약 남용, 주택, 복지, 교육문제등에 관해 시시콜콜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국방지출에 대한 편향보도와 제멋대로의 비판등은 크던 작던 자연발생적 사회움직임인 안보에 대한 고정 의식구조를 흔들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 보자.

- (1) V-22 Osprey와 기타 계획들(B-2 포함)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지원 문제의 불명확성
- (2) 펜타곤 조달기구의 합리화
- (3) 펜타곤의 장비획득계획에 대한 언론의 피상적인 기사
- (4) 부시/고르바초프의 감축계획

이 4가지의 국방관련 문제들은 모두 공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공통관계는 동·서의

깊은 적대감정을 종식시키고, 유럽대륙의 지속적인 평화유지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입법가들이 그들의 특별한 이익으로 인하여 파악하지 못한 관계이다.

이것의 핵심은 유럽주둔군의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상당히 감축할 부시/고르바초프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과 심지어 국방성에서도 예산배정에서 제외시켰고, <US News & World Report>誌도 보도한바 있는 최하장비로 명단에 오른 장비들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더우기 국방성의 조달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감축된 NATO군을 위해 장비를 충분히 구입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바르샤바 조약군은 계속 숫적인 우세에 있게 된다.

V-22는 대당 3천만불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대잠수함작전, Medivac, 전술병력 수송, 空輸공격과 화물수송같은 다양한 임무를 고려한다면, Osprey는 한 종류이상의 항공기를 대체할 다기능 항공기이다. 그 결과로 결국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게다가 Osprey는 미국이 강력한 상업적인 우위를 획득할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BIFV(Bradley 보병전투차량) 또한 취약성문제가 제기되어 '최하' 목록에 있다. 그러나 BIFV의 취약성은 감소되었다. 2년동안 BIFV는 새로이 장갑을 보완하였고 무기발사대를 재조정하였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BIFV가 항공, 기갑, 포병의 지원으로 충분히 보호받을수 있는 지역에서 작전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B-2기는 역사상 그 어느 유인폭격기보다도 발각되지 않고 더 멀리 비행할수 있다. 또한 B-2기는 확실한 2차공격능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전략무기와는 달리 소환시킬수 있다. 그래서 B-2기는 미국의 전략적인 전쟁역지력의 신뢰성을 증가시켰고, 이 신뢰성은 유럽에서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감축을 위한 협상을 후원하

는데 필요하다.

B-2기의 개발을 통한 스텔스 기술은 다른 미래 군용장비에 과급될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호메이니와 같은 난폭한 지도자들과의 작전에서 B-2의 가치는 절하되지 않을 것이다. 미 공군은 이러한 임무시 조종사나 항공기의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B-2기는 적의 레이더를 피하고 비행중 급유가 필요없다.

미·소의 관계가 좋다면 소규모의 NATO/바르샤바조약군이라는 결과를 낳을것이라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로 외국은 미국에게 자기영토에서 공군기지를 운용토록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 공군은 적의 영토에 항공기를 보내는 전방지원임무를 많이 상실할 것이다. 결국美 영토내에서 많은 임무가 수행될 것이다.

이것은 스텔스기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B-2 개발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스텔스 기술 완성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적보면 몰라요...

한 여성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려고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운전솜씨가 하도 형편이 없어 앞의 차에 부딪치고, 황급히 후진하다 이번에는 뒤차와 충돌해 버렸다.

찌그러진 차를 몰고 간신히 도로에 나왔을때 경찰관이 물었다.

「부인, 면허증을 보여 주시죠.」

그러자 여성운전자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당신은 바보인가 보군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내가 면허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실수가 될 것이다.

개 선

7월에 체니 국방장관은 국방성의 조달기구를 재조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은 일의 효율성 향상과 잘못된 慣行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니는 조달개선의 방법으로 재조직이나 권력집중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체니는 미국 국방성내에 특별구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에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실패하였다. 카메론이 주위배경에 따라 색깔을 자주 바꾸듯, 또 오래된 획득 문제가 표면화 될때마다 펜타곤과 군은 조달 조직을 재조직하며, 권한을 집중하고 또 권한을 분산시켰다.

자주 나타나는 방해물은 무엇인가? 장비나 기구인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조달개선은 재조직문제보다 진행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국방성의 조달영역에 NATO 동맹국간의 대규모의 업체대 업체간의 협력, 합작 및 기타 단체간의 협약, 게다가 경쟁계약과 기업의 독립연구, 개발촉진책이 포함되지 않고 권한집중과 관계요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

불행하게도 감축한 NATO군은 조달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소의 감축은 미 국방성이 고도기술 장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게 하여 연구개발과 강력한 조달정책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부족한 예산과 허약한 전쟁역지력하에서 조달국장은 부족한 예산으로 더욱 강력한 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세밀한 조달정책의 절차없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체니는 조달정책의 개혁이 진행중이라고 발표하였지

국방성의 조달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감축된 NATO군을 위해 장비를 충분히 구입할수 없다. V-22는 대당 3천 만불이상의 비용을 들여야한다. 그러나 대잠수함작전, 전술병력수송, 空輸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고려한다면 Osprey는 한 종류이상의 항공기를 대체할 다기능 항공기이다. 그 결과로 결국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미국이 강력한 상업적인 우위를 획득할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만 폭넓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언론의 역할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찬반양론 모두를 신문잡지에 보도자료로서 제공하기는 어렵다. 최하장비목록에 있는 무기들의 구매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생산업체나 장비옹호자들의 강변(強辯)보다는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이 장비의 옹호자들이 말한 주요한 점을 생략한 '최하' 장비목록은 사실상 아주 형편없는 기사다.

방산장비 생산에 대한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할 의원들은 이러한 기사에 현혹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는 미·소 감축가능성에 대하여 역행하는 이러한 모든 분석들을 미국 의원들이 주시할 것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국방성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미군배치 입안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인 유럽은 허약한 美 군사력으로 인하여 위험상태에 빠졌다. 대서양 양측의 정책결정권자들은 국방과 관련된 문제들의 연관관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새로운 평화에 각각 연결시킬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 <Miltech 89/8>